

화이트·벨런타인데이는 ‘재고처리 데이(?)’

품질 떨어진 사탕·초콜릿 끼워 팔기 상술 극성 유통기한 임박 제품 화려한 포장술 둔갑 판매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 등을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일명 ‘화이트데이(3월 14일)’를 앞두고, 관련업계의 과도한 상술이 판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재고 상품이나 품질이 떨어진 사탕 및 초콜릿 등을, 화려한 포장지로 치장해 일반제품에 비해 몇 배에 달하는 가격을 붙여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술은 청소년들의 소비심리

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지역 제과점 및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지역의 유통업체와 제과점들이 화이트데이를 비롯해 지난달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 기념일에 맞춰 제품 마케팅을 위해 각종 화려한 묶음 상품을 내놓고 판매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다가올 화이트데이에 맞춰 충장로 등 유명 변화가의 제과점과 편의점·팬시점 등에 앞다퉀 상품 등

을 진열해 판매에 들어갔다.

편의점에선 큰 바구니에 사탕·초콜릿을 인형과 함께 담아 선물용으로 포장진열하고, 대형마트와 제과점들도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쪽에 특별 판매 진열대를 설치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있다.

지역의 유명 제과업체 관계자는 2~3월 사탕과 초콜릿 매출은 한 해 수익의 약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입학과 졸업 등 기념일이 많은 2~3월엔 ‘사탕과 초콜릿 재고 처리’ 기간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도 화려한 선물용 포장에

살짝 끼워 가격을 2배 이상 높게 책정해 판매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업체들은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포장지만 떼어 내고 개별 품목으로 다시 판매하는 ‘짬수’를 부리기도 한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 시중서 판매되는 초콜릿 제품의 유통기한은 약 1년에서 1년 반이다.

업체에선 공공연하게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일명 ‘재고 상품’ 등을 이 시기에 떨어우므로 내놓은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닐포장을 뜯지 않으면 일일이 제품의 유통기한이나 성분을 확인할 수 없어 자칫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술이 기념일에 예민한 청소년들의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외관과 가격만을 보고 제품을 고르는 경우가 많아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업계의 자정작용이 절실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화이트데이 등 각종 기념일에 사탕이나 초콜릿 등 비슷한 포장에 내용물만 바뀐 제품들이 공장 몰류 창고에 가득 쌓여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화려한 겉포장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하는 소비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광민 기자

글로벌 인재 육성·국제교육 메카

전남도국제교육원 내일 개원

전남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등 국제교육을 담당할 전남도 국제교육원이 문을 연다.

전남도국제교육원(원장 양병주)은 오는 14일 여수에서 개원식 갖는다 12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12월 여수시와 국제교육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2016년 8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와 도의회 설립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마쳤다. 지난해 9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3월 건물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1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신축공사는 오는 6월 완공 예정이다.

전남도국제교육원은 시대의 변화에 앞서는 외국어교육, 세계시민양성 글로벌역량교육 등을 통해 연 2만3,000여명을 교육한다. /황애란 기자



포트홀 긴급보수 1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두교에서 복구청 건설과 긴급도로보수팀 직원들이 포트홀을 긴급보수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아파트통장, 입주자 명부 무단 수집 ‘논란’

서구청 “명부 요구 목적 등 파악 중”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주민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논란이 휩싸인 아파트단지 통장에 대해 광주 서구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서구는 12일 통장 박씨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체 입주자명부를 요구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9일 주민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명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관리사무소 담당자는 아파트 호수와 각 세대주 이름만 간추린 편집본을 전달했으나, 박씨는

모든 세대원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전체 입주자명부를 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4용지 50여쪽 분량인 명부에는 동·호별 거주자 이름과 관계, 입주날짜, 자가 여부, 집 전화와 휴대전화 번호, 보유 자동차 대수, 면적 등 주민들이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 측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담겼다.

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박씨가 입주자명부를 입수한 뒤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의 홍보 문자메시지가 하루 5통 가량씩 들어온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

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실태조사는 구청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해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통장이 방문할 때마다 부재중인 주민에 대해서는 구청이 따로 우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박씨가 주민실태조사를 할 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직접 대면을 할 수 없어 연락처가 없는 명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적절성이 드러나면 해촉할 방침이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면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찬 기자

시교육청-전교조, 6년만에 단체협약

처우·근무여건 개선 등 522개 항목 합의

광주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12일 6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4시 장휘국 교육감과 정성홍 광주지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2017 단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2013년 정부가 해직자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한 이후 처음

체결한 것이다.

2012년 단체협약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전교조 광주지부가 지난해 교섭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본 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3차례의 실무교섭과 3차례의 부서별 사전협의를 거쳤다.

전문을 비롯해 본문 92조 515개항, 부칙 4조 6개항 등 모두 522개 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은 교원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교원 업무 경감, 교원의 승진·전보 등 인사제도 개선, 계약제 교원·보건·영양·사서·상담교원의 교육환경과 처우개선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양측은 광주교육의 현안 해결과 행복한 광주교육 공동체 실현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전교조를 교육 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법외노조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목포해양경찰서 선박안전 특별검사

목포해양경찰서는 12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546척에 대해 오는 4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5t 미만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선박안전검사를 받고 선박의 종류·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포 = 박승경 기자

친구 가버리자 차량털이

○··나주로 함께 놀러온 친구가 말싸움뒤 혼자 가버리자 생활비를 마련한

다며 차량을 턴 30대가 절창행.

○··12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정 모씨(33)는 지난 2일 새벽 3시 13분께 나주 일대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지갑(75만원 상당) 등을 훔치는 등 지난 2월 27일부터 2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

○··경찰에서 정씨는 “친구가 다들 뒤 혼자 가버렸다”면서 “혼자 남겨진 뒤 수중에 돈도 없고 막막함에 차량을 털었다”고 진술. /나주 = 이재순 기자

식당, 커피숍, 편의점, 노래방 - 점포임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최고위치 (지리산 온천 정문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 (55평), 편의점 (55평)
- 지하 - 노래방 (85평)
- 호텔건물, 비/건 없음, 커피숍/편의점 분할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시설 가능
- 문의 - 010-3605-5000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즉시 입주 가능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매매 - 8200만원
- 주인직매. 010-3605-5000